

2022년 09월 25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95편 1~2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407(통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8장 8~22절 (구약p.768)

8.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9.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10.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11.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12. 이런 것은 새 순이 돌아 아직 뜰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13.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14.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15.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16.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17.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18. 그 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19.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20.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21.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22.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 말씀선포 / 지혜롭지 못한 권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만물의 으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뽐내며,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거쳐 정답을 확실히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분명 욥의 경우를 통해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는 다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모두 헤아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빌닷이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도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 더욱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증거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로 판단하고 단정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 빌닷은 기본적으로 욥이 당한 재앙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가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7절에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고 말합니다. 빌닷은 욥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재앙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빌닷이 이 말을 욥에게 할 때 그는 욥과 그 자녀들이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단정 짓고 정죄한 후 욥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는 진펄 아닌 데서 자라는 왕골과 물 없는 데서 자라는 갈대와 같아서 왕성하게 잘하지 못하고 다른 풀보다 일찍 말라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본문 11~12절입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 돌아 아직 뜰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지금 빌닷이 단정 지어 말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욥의 상황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라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빌닷은 일반적 상식으로 욥의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빌닷은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고 떠난 결과 재앙과 징벌을 당하여 망한 일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에는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앙이 죄 때문이라는 빌닷의 단순한 생각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 지식과 상식으로 함부로 다른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잊은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본문 13~15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로 돌아올 때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20~22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고 말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인을 보호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므로 욥이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의 복을 베푸시리라는 말입니다. 분명 이 말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빌닷은 욥에게 재난에서 벗어나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듯 보입니다. 비록 지금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욥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입에 웃음을, 그의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채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복수하셔서 그들의 장막을 없애시리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러한 진술은 욥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과 그 아픔은 너무도 상식적인 말로는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닷은 욥이 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형식적인 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닷의 말은 옴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큰 외로움과 슬픔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옴의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았고 특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지혜 곧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도 분명 상황에 따라서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지혜로운 자, 성령의 분별하시는 은혜로 지혜롭게 권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사랑과 배려 없이 권면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 빌닷의 근본적인 문제는 옴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찾아 왔지만 일반적인 지식인 상식으로 상대방을 단정하고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생각나지 않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번민하고 있는데, 빌닷은 자기 생각으로 옴을 규정하고 나름의 처방을 내립니다. 그가 옴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했다면 옴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의 심정을 동감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병이 나서 아픈 사람을 찾아가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은 죄가 없기에 아프지 않고 상대방은 회개해야 할 죄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상대방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주게 됩니다. 성도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의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규정하지 말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전하며 그들의 도움이요,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두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23절에서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체 중 유일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관은 머리오, 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각하며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고 연약한 지체를 돕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이 정한 정답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동감하고 그를 위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함부로 충고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머리가 아니라 붙잡아주고, 찾아가며, 힘이 되어주는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 참된 위로자요,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55(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폐 회 / 주기도문